

제임스 김 (James Kim) (1946-2023) 의 장례식

세인트 필립 성공회 교회, 호주 오크너 액트, 2023년 12월 19일

스콧 카우델 (Scott Cowdell) 교수 목사 사가 집례

시편 30편, 누가복음 2장 22, 25-32절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몇 년 전, 한 젊은 복음주의자가 자신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부부인 제임스 김과 브라이언 맥킨레이가 부부와 함께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동성애자 부부와 성경은 함께 묶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독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 부부의 담백한 기독교 간증에 감동을 받고 개종했습니다.

전 세계 성공회가 동성 문제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브라이언이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신학 연구의 저자인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가 대담한 호소를 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게이와 레즈비언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래야 반대자들이 명백히 경건한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제임스 덕분에 그 젊은 복음주의자도 결국 우리 교회의 신부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 총회에서 동성애자 포용을 위한 주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무슨 일이든 괜찮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숨 막히는 진보적 열정이 마치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인류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감옥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인내심 있게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해방시키는 꿈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 작가는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제임스도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복음에서 들은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시므온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모든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제임스와 세레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끊지 않으실 유대감입니다.

시므온이 복음서에서 선포하고 우리 교회의 저녁기도에서 낭독하는 *시므온의 노래 (Nunc Dimittis)* 는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기념합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른 즐거운 신비들, 즉 마리아에 대한 탄생 예고,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레자 요한의 어머니와의 만남, 베들레헴 헛간에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가는 성전 신학자들과 정면으로 대면하시는 소년 예수와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대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그들의 국가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이고 널리 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우리 각자에게 복음입니다. 제임스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가장 끈질기게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 . .

시편 30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누가복음 2장 22, 25-3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 . .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